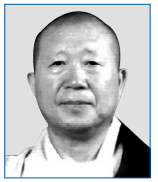


일주문



파라미타 2012 지도자 연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2월 18~19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정기총회 및 지도자 연수를 개최한다.



실천승가회 2012 총회
실천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은 2월 16일 조계사 안심당에서 실천승가회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환경연대 2012 정기총회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은 2월 23일 전법회관 4층 불교인재원 교육장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명예졸업식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2월 15일 '2012 지정평생학습관 카네이션학교 명예졸업식 수여식'을 진행했다.



국제포교사회 제17기 연수모집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2월 29일까지 제1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 교육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2월 15일~4월 1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서 '아름다운 마침표, 그 마지막 성과 하나 됨' 교육을 실시한다.

“무문관에 있으면 잠시도 방일 못해”

신홍사 무문선원 유나 영진 스님

무문관(無門關)은 문이 없다. 스님들이 화두를 안고 닫힌 공간에서 안거 기간 동안 '홀로수행'을 하는 곳이 무문관이다. 90일 간의 안거가 끝나는 날, 문 없는 무문관의 문이 열렸다.

한국의 무문관 선원은 근현대 무문관의 효시였던 도봉산 천축사와 감사대자암, 제주 남국선원, 백담사 무문선원, 감포 관음사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안거에 백담사 무문선원 무문관에는 11명의 수좌스님들이 정진했다.

무문선원 유나 영진 스님은 “해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계 중 일어난 경계를 선지식을 찾아 점검 받고 답급할 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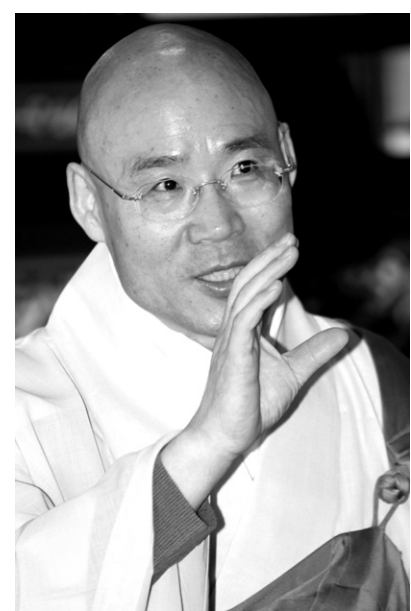
영진 스님은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무문관이 있는 무문선원, 향성선원 모두 새벽 3시 기상해 저녁 9시 방선까지 용맹정진 해왔다. 향성선원은 하루 4차례 10시간 입선하고, 아침·저녁 예불을 올린다. 두 곳 모두 입선 하거나 하루 세끼 먹는 게 일과라 전부이다”

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무문관에서는 공양물이 매일 들어가는 것 외의 출입은 없다. 입선·방선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영진 스님은 “무문관에 들어오면 무엇 하나 나갈 수도 내보낼 수도 없다. 들어왔지만 있는데도 어김없이 공양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공양물이 들어올 때 파리 한 마리가 함께 들어왔는데, 파리가 절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문관에 든 어느 날, 공양이 아주 늦게 도착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폭설을 헤치고 사미스님이 행여나 공양이 잘못될까 조심스레 머리에 이고 와서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읊소했던 모습,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공양이 늦었던 것은 당시 조실이던 숭산 스님의 열반 때문이었다는 것.

영진 스님은 “내가 무엇이라고 저 눈 속을 뚫고 공양을 전하는 지, 큰스님이 돌아가서 경황이 없는데도 잊지 않고 공양을 챙겨주는지 울컥했다”며



“무문관에 앉아있으면 잠시도 방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진 스님은 이번 안거에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입을 열면 수행을 그르칠까 걱정된다. 무엇을 얻었다고 입을 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꽃 한 송이를 꺾으면 그 영향이 달나라까지 미친다고 한다. 수좌들이 (자신의)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무문관까지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은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일이며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진 스님은 “대승불교의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上求菩提下化衆生)’는 이념은 위대한 원력이다. 수행자는 깨달음을 타인에 회향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올곧은 수행자 한 명이 나오면 세상의 묵탁과 소급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돈봉투 파문에 대해 영진 스님은 “해제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범어사 일을 들었다. 선거제도는 개선하고 보완할 문제라고 평소부터 느껴왔다”며 “제도도 잘못됐다면 중벌을 보완해야 한다. 불교계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총선·대선 관련 공청회 열기로

불기협 정기총회 열어 부회장단 감사 등 선출

불교계 기자들이 4월 총선·12월 대선 등을 앞두고 정당 관계자·대선 후보자를 초청해 불교 정책을 듣는 행사를 마련한다. 또, 불교기자협회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추진 중이다.

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 이하 불기협)는 2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외에도 불기협은 3월 24일 관악산 연주암 등반대회, 9월 중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 회원간 친목 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신규회원으로 불교플러스 가입을 승인했다.

수석부회장에 홍진호 PD(불교tv), 차석부회장에 김현태 기자(법보신문), 내부감사에 김형규 기자(법보신문)를 선출했다. 외부감사는 차후에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외국인 참가자 5000명 늘릴 것”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 2012년 주요사업계획 발표

“올해는 내·외국인 템플스테이 활성화 위해 전년에 비해 투자를 집중시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2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년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법정 스님은 “2012년에 외국인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년에 비해 외국인인 5000명, 내국인은 1만 명 이상 참가인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법정 스님은 ▷휴식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템플라이프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되는 담마클래스 등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600만원의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호텔 공항 여행사 대학 관공서 등에 홍보물 비치, 지하철 홍보영상, 항공사 책자 홍보, 전체 매뉴얼과 리플릿 제작, 배너광고, 모바일 웹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정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이들의 지속적 소식과 결속을 위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정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지역의 거점사찰로서 확고히 자리하기 위해 핵심신도 양성과 조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법회와 기도의 활성화로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양시키고, 체계적인 신도 교육을 통해 중단의 핵심신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문화·포교 프로그램, 직능법회, 어린이·청소년 법회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법정 스님은 “불교사상과 교리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강좌 교육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한다면 국제선센터는 행복한 정도세계를 구현하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선센터 국제사장에 명법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명법 스님은 1994년 성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9년 정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와 비구니계를 수지했으며, 운문사 승가대학과 운문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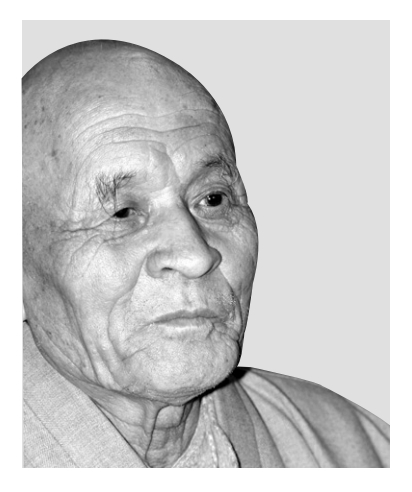
만월정사 조실 성공 스님 입적

세수 87세·법랍 72세...10일 통도사서 다비식 엄수

열반 독송 문화를 대중화시킨 부산 만월정사 조실 성공 스님이 2월 6일 오전 5시 입적했다. 법호는 만월, 세수 87세, 법랍 72세. 스님의 장례는 문도장으로 5일간 치러져 다비식은 10일 통도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성공 스님은 1973년 한국 불교 최초로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제작·보급했다. 이후 <천수경> (아미타경) <부모은중경> 등 독송 테이프를 내며 불자들의 신행문화를 견인한 바 있다.

성공 스님은 1926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했다. 1941년 선산 도리사에서 운암 스님을 계사로 출가해 같은 해 운봉 스님에게 사미계 수지, 1943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48년 통도사불교대학에서 대교과를 마친 스님은 1949년 동래 포교당 법륜사에서 화엄산승가대학과 운문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하는 등 수행에도 빈틈이 없었던 스님은 총무포교당·총무 용화사·울산 포교당·진주 연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또, 1971년 부산 안양사에 주석하면서는 경전 독송 테이프를 제작·보급을 시작했다.

성공 스님은 2003년 부산 관음사림 법사로 추대돼 전국 각 포교당에서 화엄·법화·금강 등 여러 경전을 산림에서 법사로 활동했다.

조동섭 기자

〈인사〉 진각종 회당학원 인사 추천

진각종(총리원장 혜정 정사)은 2월 1일 서울 총인원내 총리원 회의실에서 제298회 원의회와 진각대학원 운영위원회 합동회의를 갖고 위덕대학교 정교실장 무의 정사의 후임으로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 범주(불정심인당 주교) 정사, 심인중고등학교 정교실장에는 향덕(지정심인당 주교) 정사를 각각 선임했다.

선임된 인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측에 추천 양식으로 진행돼 인사발령된다.

신임 심인중고 정교실장 향덕 정사는 진가51(1997년) 여래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정제심인당과 육정심인당 주교, 통리원 문화사회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밀교신문 논설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원의회는 2012년도 제12기 심학과정 교육대상자로 능원(대명심인당 주교) 정사 등 10명과 제9기 교학과정 교육대상자로 효광(성진심인당 주교) 정사 등 6명을 선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본원중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7기 학인모집
교육기간 : 교육기간
입교식 : 2012년 3월 2일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교육내용 : 기초 도량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계, 요잡바라, 도량계, 다계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중 총무원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테라와다 법석(法席)
개설 취지
테라와다불교는 2555년의 역사와 함께 스리랑카·미얀마·태국·라오스·캄보디아·인도·유럽·미국·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정법에 기반하여 올바른 삶을 지향하고 있는 전통적 근본 불교 교단입니다. 2009년 10월 한국테라와다불교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존귀하신 부처님께서 금구(金口)로 설하신 근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수행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테라와다 법석'을 개설합니다.
법석 내용
1. 테라와다(근본불교) 교리강좌
2. 수행의 이론과 실제 : 실수행 및 면담지도
3. 초대설법 - 테라와다 고승 초청 법문 (예정)
법회시간 및 장소
1. 2012년 3월 9일(임재법회) ~ 12월 14일(해제법회)
2. 교리강좌 : 매일 <1,3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3. 수행의 이론과 실제 : 매일 <2,4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4. 초대설법 : <5주째 금요일> (6월, 8월, 11월)
5. 법회장소 : 서울 남산 (재단법인)대원정사
동참 대상
테라와다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모든 출·재가자 및 일반인
접수
1. 동참금은 없습니다.
2. 동참하실 분은 미리 전화접수 바랍니다.
3. 접수전화 : 010-4546-2840 / 011-9135-8277
4. 홈페이지 : http://www.theravada.kr(한국테라와다불교) 참조하세요.
한국테라와다불교 Theravada Buddhāsāna in Korea